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의 모유수유 상담내용 분석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김정윤 · 황승재 · 박현경 · 이하백 · 김남수

= Abstract =

Analysis of online breast-feeding consulta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Jung Yun Kim, M.D., Seoug Jae Hwang, M.D., Hyun Kyung Park, M.D., Ph.D.
Ha-beck Lee, M.D., Ph.D. and Nam Su Kim,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Since the infant formula milk has been produced in Korea, it has faced a low rate of breast milk feeding, though breast milk feeding is a little increasing. Therefore,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launched its website for breast-feeding consult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enhance the health of growing infants. The consultation result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mothers encounter during breast-feeding.

Methods : From August 1, 2004 to July 31, 2007, 1001 mothers who visited the online consultation webpage (www.pediatrics.or.kr)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asked 1,021 questions. The questions were divided into 3 major categories and 14 specific categories. Interesting questions asked more than 100 time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Results : The results for the major categories were as follows: 413 questions (40.3%) were on how to breastfeed, 315 (30.8%) on problems of feeding mothers, and 293 (28.8%) on problems of the fed babies. In the specific categories, 22.2% of the questions were on how to breast-fe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couples and working mothers, many questions were asked on the problems of breast-feeding after returning from work.

Conclusion : The author expects that analyses of these consult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on the consultation website, thus enabling to provide clearer answers to people's increased interest in and concerns on breast-feeding. Furthermore, this research will help to establish correct breast-feeding practice. (*Korean J Pediatr* 2008;51:1152-1157)

Key Words : Breast-feeding, Online consultation

서 론

영아기는 일생 중 신체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또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모유는 생후 첫 6개월 동안 영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식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¹⁾. 아기에게 완전 식품인 모유의 수유율은 전세계적으로 20세기 초까지 영아 영양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60년대 말 조제분유의 시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2,3)}. 따라서 1970년대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모유수유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모유수유율이 증가되었다⁴⁻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970년 99.7%, 1979년 30.4%, 1981년 28.5%, 1993년 16.9%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0년도 모유수유율은 10%를 기록하였다가 2002년에는 16.3%로 약간 상승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Fig. 1).

우리나라에서 6개월 미만의 아기 중에 혼합수유를 포함한 모유수유율은 2008년 현재 35% 정도이며 국가별 비교 결과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유모가 수유를 중단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원인으로 모유부족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모유량이 부족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수유방법과 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이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2003년 10월 모유수유를 권장하

Received : 29 July 2008, Revised : 3 September 2008,

Accepted : 5 September 2008

Address for correspondence : Nam Su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 +82.2.2290-8390, Fax : +82.2.2297-2380

Email : namsukim@hanyang.ac.kr

본 논문의 내용은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내의 모유수유상담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사용에 대해 대한소아과학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용 모유수유 비디오 “엄마 젖은 사랑이다”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후 2004년 5월에는 모유수유 집중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인에게 교육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내에 모유수유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모유수유 중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점을 알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모유 수유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상담내용 분석하여 향후 모유수유 권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내 모유수유 상담코너에 올라온 모유상담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연구는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상담자수 505명과 유효문의 51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연구는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로 구분하였고 상담자수 506명과 유효문의 총 506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의 내용 중 모유수유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제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유수유 집중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상담에 응하였다.

상담 질문 구분은 대 항목 3가지와 그에 따른 소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 항목은 크게 모유수유방법, 수유모 문제점, 수유 아기 상태 등에 대한 내용이다. 모유수유방법에는 수유방법, 수유시간 및 이유식, 밤중 수유, 모유 끊기, 채수유 등의 내용이 포함하였고 수유모 문제점에는 모유량, 음식 및 기호품, 약물 복용, 질병, 유두, 배란, 월경, 중절수술 등이 포함하였다. 수유 아기 상태에는 대소변, 성장상태, 관련 증상(구토, 보챔 등)으로 세분화하여 1차와 2차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는 Chi-squared 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결 과

1. 대 항목 별 질문 분포

두 시기별 연구 모두에서 세 가지 대 항목 중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질문이 전체의 36% (187/515), 44.5% (226/506)로 가장 많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수유방법이 56.1% (105/187), 67.8% (150/226)로 가장 많았으며 수유시간 및 이유식, 밤중 수유 순으로 이어졌다. 2차에 걸친 상담 내용 분석 중 모유수유방법에 있어 모유 끊기에 대한 항목이 1차 연구 결과의 11%에 비해 2차 연구 결과에서는 현격히 낮아진 4%를 보이고 있다($P<0.001$). 채수유, 즉 모유수유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비율은 1차와 2차 연구가 동일한 상태였다(6%).

또한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 증가와 모유보관 및 관리, 유축기 사용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노력이 보이고 있었다. 2차 연구에서는 직장 내

수유실, 짜놓은 모유를 아이스박스로 운송하는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 항목 별 질문 분포에서 다음으로는 1차 연구기간에서는 수유모 문제점이 34% (176/515)로 많았으나, 2차 연구기간에서는 수유 후 아기 상태가 28% (141/506)로 많았고,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Fig. 2).

2. 소 항목 별 질문 분포

소 항목 별 질문 내용으로는 두 시기별 연구 모두에서 수유방법이 전체의 20.3% (105/515)와 30.2% (150/506)로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0.05$). 수유방법의 세부상담 항목에는 젖은 헝스, 유두혼동, 직장복귀 모유수유, 모유보관 및 관리, 먹는 양 부족, 수유시간, 수유자세, 수유 중 취침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밖에 대소변, 수유 후 증상, 모유량, 수유모의 음식 및 기호품 등으로 이어졌다(Fig. 3).

3. 월별 상담 질문 및 100회 이상의 조회 건수

월평균 42건의 상담건수가 있었고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조회수가 100회 이상이 되는 관심질문으로는 1차 연구기간에서 모유수유법, 수유모 문제점, 수유 아기 상태의 순으로 많았으며, 2차 연구기간에서는 모유수유법, 수유 아기 상태, 수유모 문제점의 순으로 많았다(Fig. 4).

4. 모유수유 상담자의 아기 나이 분포

모유수유 아기의 나이 구분은 두 시기별 연구를 통합해서 생후-3개월, 4-6개월, 7개월-1세과 13개월-2세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6개월 미만이 81.9%이었고, 특히 3개월 미만이 6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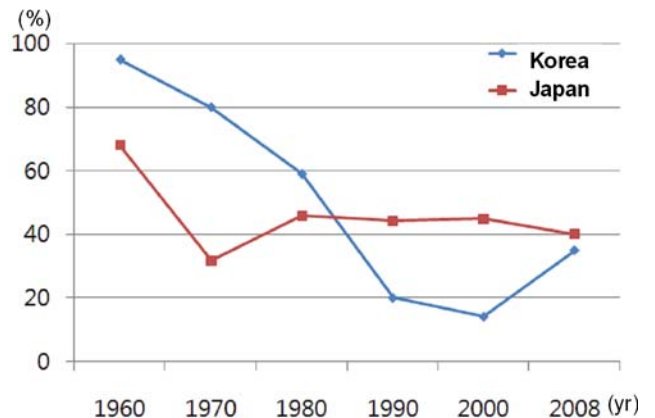


Fig. 1. Incidence of breast-feeding in Korea and Japan in the past 48 years. Korea : Korean Pediatric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Japan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ince 1970, Our Society began to produce infant formula milk, it has faced a relatively low rate of breast milk feeding in both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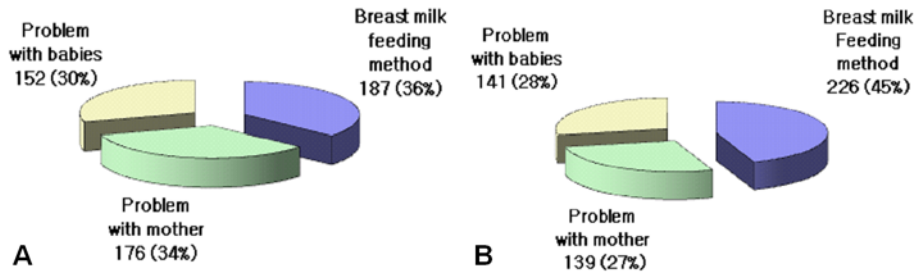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major categories of questions on breast-feeding. (A) 1st Study (2004.8.1-2005.7.31). (B) 2nd Study (2005.8.1-2007.7.31). Two period studies are same results of major category item : Most common question is how to feed with breast mi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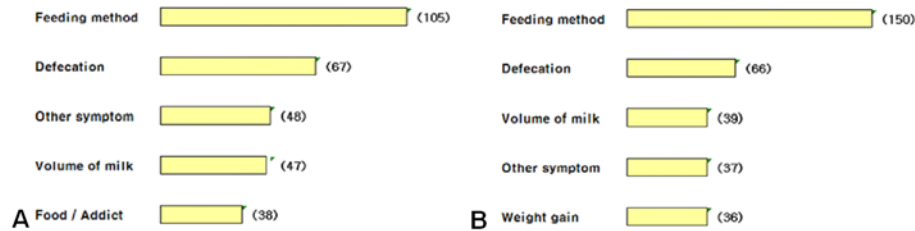


Fig. 3. Analysis of minor category of questions on breast-feeding. (A) 1st Study (2004.8.1-2005.7.31). (B) 2nd Study (2005.8.1-2007.7.31). Two period studies are same results of minor category item : Most common question is Breast-feed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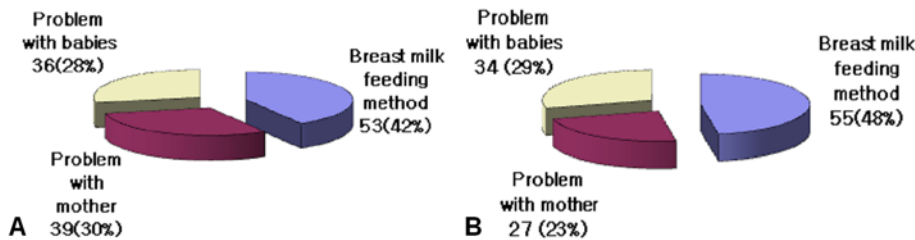


Fig. 4. Analysis of questions that were asked more than 100 times. (A) 1st Study (2004.8.1-2005.7.31). (B) 2nd Study (2005.8.1-2007.7.31). Two period studies are same results : Most common question is how to feed with breast milk. This result was same that of the analysis of the each entire questions.

고 찰

모유는 생후 4-6개월 영아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두뇌 발달¹⁰⁻¹²⁾과 치아 발달에 밀접하며,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13, 14)}. 초유는 비록 양이 적을지라도 신생아에게 적당한 양이며, 장운동을 최초로 자극하고 태변을 배출하게 하며, 세균감염에 저항력을 갖게 함으로써 소화기와 호흡기계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¹⁵⁾. 모유에는 항-세균과 항-바이러스 항체, 대식세포, 백혈구, 보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어인자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성장인자들이 들어 있어서 미숙한 아기의 장관점막의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우유 알레르기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면역반응의 완화 또는 알레르겐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모유 수유를 실천하는 어머니는 폐경기 이전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여 주고, 빠른 산후 회복, 산후 비만 예방 등 장점이 많다.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영양적인 면이나 면역학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전수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인격형성과 개인적으로 건전한 미래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1970년대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는 모유수유율 증가로 이어져 유럽 75%, 미국 52%, 일본 45%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유수유율은 낮은 편이며, 최근 대한소아과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약38%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다. 모유수유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내 모유수유 중단 가장 흔한 이유는 '모유부족'이었으나 절대적으로 모유가 부족한

산모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²⁾. 2005년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행한 모유수유 실태조사에서도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41.6%에서 모유부족이었으며, 모유중단의 이유, 모유수유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답변 역시 동일하게 모유부족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항목 중 수유모 문제점에는 모유량이 전체의 29%로, 단일 질문 항목으로는 모유부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아기에 충분한 양의 모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모 자신의 모유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모유가 젖병의 우유처럼 펄펄 쏟아져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산모의 모유가 아기의 성장에 앞서 미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젖을 빨면 빨수록 모유는 충분히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유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모식을 잘 먹는다’라는 대답이 66%를 차지하며, ‘자주 빨린다’는 올바른 대답은 30%의 산모들만이 알고 있었다²⁾. 본 연구에서도 모유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은 비슷한 형태로 나열되었으며 대부분의 수유모들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한다’, ‘보약을 먹는다’ 등의 대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모유수유 실태조사에서는 산전 모유수유 교육 및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전체의 62%가 “아니오”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분만 전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유수유 산모에게서 나타나는 유방 및 유두 문제, 모유부족, 산모의 수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재,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한 현실적 장애, 조제분유 보급 등이 모유수유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산모 교육에 고려하여야 한다. 분만 전 67.6%의 높은 모유수유계획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제 모유수유율이 20.0%까지 저하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술분만, 신생아실 분리 등의 병원환경이 생후 첫 모유수유 시기를 지연시키고, 병원에서의 모유수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으며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첫 모유수유에 실패하였다¹⁶⁾. 모유수유기간은 분만 후 모유수유를 빨리 시작하고 첫 모유수유가 성공적이었던 경우에 길었다. 이에 1989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를 발표하면서 임산부와 의료인의 교육과 모자동실을 권하며, 태어난 지 30분 이내에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17, 18)}. 임신초기에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하므로 산부인과 의사는 수유법을 계획하기 전에 소아과 의사에게 산모를 보내어 소아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모유의 장점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19, 20)}. 모유수유 중단 이유 중 ‘아기가 젖을 못 빨아서’와 ‘젖을 거부해서’ 등은 모유수유를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모유수유 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산전교육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이 어렵게 시작하고 노력하여 분만 후 성공적이었던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조제분유로 바꾼 이유 중에는 ‘직장복귀’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결과이며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연구결과에서도 현재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이 직장생활 때문이었으며,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여성이 전체의 59.5%이었다. 평일에 아기에 젖을 물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낮에 직장에서 유축기를 통해 젖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화장실이나 여성 휴게실 등을 이용하므로 불편이 컸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기획예산처에는 직장 내 수유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아기에 모유를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도 직장 여성의 증가로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질문이 1차 연구에 비해 2차 연구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유축한 모유의 보관 및 관리 방법부터 유축기의 종류, 해동한 모유와 신선한 모유의 영양소 차이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차 연구에서는 단일 질문 항목에서도 역시 모유 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보인 내용이 바로 직장 복귀 후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점차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생후 1-2개월이 아닌 장기간의 육아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교육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유수유를 적극 지원하고, 직장에서의 모유수유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직장 내 모유수유실, 탁아실 등의 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²¹⁾.

결과적으로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 및 정확한 수유방법에 대한 산모 교육을 출산 전부터 실시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모유수유 홍보활동 및 모유권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내 모유수유 상담실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앞장서서 직장 여성들의 관심 증가로 인한 직장 복귀 후 모유수유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 교환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현대사회 여성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모든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유수유 교육에의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올바른 지식전달을 통한 모유수유율 증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내의 모유수유상담실을 통해 정리, 분석된 내용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이 내용을 게재하도록 허락해 주신 대한소아과학회 의료정보 및 홍보 위원회와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 약

목적 : 우리나라는 조제분유가 시판된 후,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교적 낮은 모유수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소아과학회는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모유수유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모유수유 중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점을 알고자 하였다.

방법 :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대한소아과학회 모유수유 상담실(www.pediatrics.or.kr)에 방문한 1001명의 질문자가 게재한 1021개의 문의건수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질문종류는 대 항목 3개와 소 항목 14개로 구분하였으며, 질문 답변에 대한 조회수 100회 이상의 관심질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를 1차 연구기간으로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를 2차 연구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총 1021건의 질문 중 대 항목 별 분석으로는 모유수유 방법 413건(40.3%), 수유모 문제점 315건 (30.8%), 수유 아기 문제점 293건 (28.8%)로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수유모 문제점에서는 모유량(27%), 수유 아기 문제점에서는 아기의 대소변(46%)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소 항목 별 분석으로는 수유방법(22.2%), 아기의 대소변(13.1%), 모유량(8.5%)의 순으로 수유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직장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에 대한 질문이 1차 연구에 비해 2차 연구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론 : 지난 3년간의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상담실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수유모의 궁극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여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어서 향후 올바른 모유수유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Lawrence PB. Breast milk; Best source of nutrition for term and preterm infants. *Pediatr Clin North Am* 1995;41:925-41.
- 2) Lee SJ, Seo JW, Park JO, Shin JH, Lee HR, Chung JT, Chung HI. A Survey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failure of breast-feeding. *J Korean Pediatr Soc* 1997;41:1336-45.
- 3) Park KB, Oh BR, Jang YT. A survey of breast-feeding in

Jeon-ju city area. *J Korean Pediatr Soc* 1999;42:614-20.

- 4) Twenty seventh world health assembly, Part I : Infant nutrition and breast feeding. Official recor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4;217:20.
- 5) Recommendations for action programmes to encourage breast feeding. *Acta Pediatr Scand* 1976;65:275-7.
- 6) American Academy Pediatrics. Committee on Nutrition : Breast Feeding. *Pediatr* 1978;62:591-601.
- 7) Lawrence RA. Breastfeeding :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 2nd Ed. St. Louis, CV Mosby Co. 1985:289-92
- 8) Sung YA, Ahn JY, Lee HY, Kim JY, Ahn DH, Hong YJ. A Survey of breast-feeding. *J Korean Pediatr Soc* 1998;41:444-50.
- 9) Choe YH, Moon KR, Seo JW, Sim JG, Yoo KW, Hong YM. Nationwide survey on current status of formula feeding in infants. *J Korean Pediatr Soc* 2000;43:444-50.
- 10) Heird WC, Lapillonne A. The role of essential fatty acids in development. *Annu Rev Nutr* 2005;25:549-71.
- 11) Gustafsson PA, Duchon K, Birberg U, Karlsson T. Breast-feeding, very long polyunsaturated fatty acids(PUFA) and IQ at 6 1/2years of age. *Acta Pediatr* 2004;93:1280-87.
- 12) Helland IB, Smith L, Saarem K, Saugstad OD, Drevon CA. Maternal supplementation with very-long-chain n-3 fatty acids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augments children's IQ at 4 years of age. *Pediatr* 2003;111:39-44.
- 13) Undurti N. Das MD. Breast-feeding, atopy, and asthma. *J Allergy Clin Immunol* 2004;113:1002-3.
- 14) van Odijk J, Kull I, Borres MP, Brandtzaeg P, Edberg U, Hanson LA, et al. Breastfeeding and allergic disease : a multidisciplinary review of the literature(1966-2001) on the mode of early feeding in infancy and its impact on later atopic manifestations. *Allergy* 2003;58:833-43.
- 15) Paricio Talayero JM, Lizan-Garcia M, Otero Puime A, Benloch Muncharaz MJ, Beseler Soto B, Sanchez-Palomares M et al. Full breastfeeding and hospitalization as a result of infections in the first year of life. *Pediatr* 2006;118:e92-9.
- 16) Kim HS, Seo JW, Kim YJ, Lee KH, Kim JY, Ko JS, et al. A follow-up survey of mothers' antenatal breast-feeding plans. *J Korean Pediatr Soc* 2003;46:635-41.
- 17) Grizzard TA, Bartick M, Nikolor M, Griffin BA, Lee KG.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breastfeeding in massachusetts: hospital implementation of the ten steps to successful breastfeeding. *Matern Child Health J* 2006;10:247-63.
- 18) Seo JW, Kim YJ, Lee KH, Kim JY, Sim JG, Kim HS et al.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breast-feeding in pregnant woman. *J Korean Pediatr Soc* 2002;45:575-87.
- 19) Park EY, Cho SJ, Lee K. Current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breast feeding by mothers. *Korean J Pediatr* 2005;48:1162-5.
- 20) Deshpande AD, Gazmararian JA. Breast-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association with the decision to breast-feed. *Eff Clin Pract* 2000;3:116-22.
- 21) Park CM.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J Korean Soc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2;19:23-43.

부록. 상담내용의 항목별 분류

대항목	소항목	세부 질문항목	
모유수유법 (413)	수유방법 (260)	직장복귀 모유수유 (45), 잦은 회수 (43), 유두 혼동 (41), 모유보관/관리 (24), 먹는 양 부족 (21), 수유 기간 (19), 유축기 사용 (16), 수유 자세 (12) 수유 중 취침 (7), 한쪽 수유 (8), 유륜 깊게 안물기/유방 크기 (7) 간유 짜내기 (7), 뿔수 부족 (5), 후유 수유 (5)	
	수유기간 및 이유식 (49)	수유 기간과 이유식 시작 (41), 부족한 철분/비타민 보충 (8)	
	밤중수유 (51)	밤중 수유의 필요성 (47), 충치 증가 (4)	
	모유끓기 (28)	혼합수유 (11), 모유수유 (6), 임신 후 모유수유 중지 (5), 기타 (6)	
	재수유 (25)	혼합수유에서 완모수 (16), 젖 말리는 약 복용 후 재 수유 (9)	
	수유모 문제점 (315)	모유량 (89)	모유부족 (85), 모유풍부 (4)
		음식/기호품 (55)	영양부족 (14), 술 (12), 건강식품 (8), 생우유 (5), 커피/녹차/허브차 (4), 흡연 (6), 매운 음식 (2), 호도/잣 (1), 육회/생선회 (1), 미역국 (1), 알로에 (1)
		약물 (60)	감기약 (11), 한약 (7), 갑상선약 (4), 무좀약 (4), 돔페리돈 (4), 관절염약 (3) 파마약 (3), 항생제 (3), 안약 (2), 회충약 (2), 변비/설사약 (2), 결핵약 (1) 진통제 (1), 칼슘제 (1), 항경련제 (1), 기타 (11)
		질병 (50)	B형간염 (17), 치과 (8), 주사 (6), 단순포진구내염 (3), X-ray (2), 감기 (2) 수술 (2), 빈혈 (2), 풍진접종 (2), 발진 (1), 임파선결핵 (1), 고열 (1) 수면내시경 (1), 간염접종 (1), 천식 (1)
	수유 아기상태 (293)	유두 (53)	유방울혈 (18), 유선염 (13), 유두통증 (11), 유두상처 (10), 유두보호기 (1)
배란/생리/중절수술 (8)		배란 및 생리 (7), 중절수술 (1)	
대소변 (135)		설사 (67), 변비 (36), 혈변 (12), 거품변 (5), 점성액변 (7), 수유 시 배변 (4), 혈뇨 (1), 빈뇨 (1), 소변양 감소 (2)	
증상 (85)		구토 (21), 보챔 (16), 복부팽만 (13), 모유알레르기 (12), 황달 (9), 빈혈 (4) 아구창 (3), 기침 (2), 딸국질 (2), 토혈 (1), 태열 (1), 소아당뇨 (1)	
	성장상태 (73)	체중증가부진 (49), 성장상태 (17), 체중과다 (6), 저신장 (1)	